

KIA 타이거즈 V10

“투혼 보여 준 후배들 자랑스럽다”

■ 옛 타이거즈맨들 축하 메시지

옛 타이거즈맨들이 12년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KIA 타이거즈의 투혼에 뜨거운 격려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모두가 목말라했던 V10인 만큼 그들도 ‘반갑다’ ‘기쁘다’를 연발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호남인들의 가슴 속 깊이 자리잡고 있던 옛 타이거즈맨들의 축하 메시지와 그들이 생각하는 우승 원동력 등을 들어본다.

‘마지막 투심’ 보여 줘 너무 기분좋다

김응용 (삼성라이온즈 사장)



현재 삼성라이온즈사장으로서 타구단의 우승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옛 시절을 떠올려 생각하면 기분 좋은 일이다. 양팀 모두 멋진 승부를 펼쳤다. 7차전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KIA의 마지막 투심이 돋보였다. 올시즌 보여준 많은 야구 팬들의 성원과 격려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한국야구발전엔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투·타 조화... 명가 호랑이군단 완전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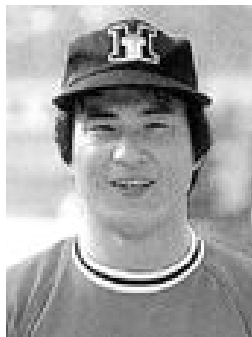
김봉연 (국동대교수)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래서인지 축하보다 되레 나무라고 싶다. 왜 이제서야...(농담이러라 웃음) 사실 지난 너무 가슴 조이며 경기를 지켜왔다. 결과적으로 한국프로야구사를 새로 쓴 만큼 타이거즈의 저력을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 전체적으로 투수로테이션이 원활했고 김상현·최희섭 등이 타격을 뒷받침함으로써 투·타의 조화가 이뤄진게 우승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장성호의 슬럼프가 아쉽다. 한국시리즈에서 로페즈·이종범의 활약이 뛰어났다. 다시 한번 KIA 우승을 축하한다.

팀워크·구단 지원·팬 관심 3박자 주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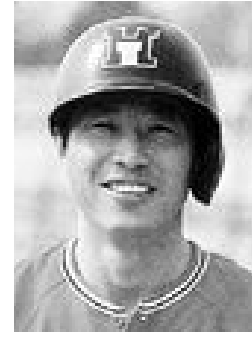
김일권(야구인)



어느 팀이라도 쉽게 이룰 수 없는 기록이다. 그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끝을 이루지 못했던게 아쉬웠는데 늦게라도 달성하게 돼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사실 시즌 초반 부진했을 때만해도 울ه도 어렵겠구나 생각했었다. 하지만 김상현의 트레이드와 로페즈·구본슨 등 용병들의 활약으로 특유의 응집력과 팀워크가 살아난게 주효했다. 게다가 구단의 꾸준한 지원과 팬들의 관심 등 삼박자가 잘 어울려서 우승의 밑바탕이 된 것 같다.

막판 고비 응집력으로 돌파... 모두가 MVP

서정환(MBC ESPN해설위원)



KIA가 인수한 후 꾸준한 투자가 뒤늦게 결실을 맺었다. 그간 선수들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합심하여 이룬 좋은 작풍이라 생각한다. 올시즌 김상현의 매서운 타격감과 용병 로페즈와 구본슨의 호투가 돋보였다. 무엇보다 안정된 마운드가 우승의 큰 힘이 되었다. 시즌 막판 고비도 있었지만 선수들의 응집력으로 위기를 모면한게 다행이다. 모든 선수들이 MVP라 할 수 있다. 굳이 꼽는다면 나지완과 로페즈를 지명하고 싶다.

‘만형’ 이종범 리더십 가을을 갈랐다

김성환(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



10여년간 타이거즈의 우승 소식을 접하지 못해 무척 아쉬웠는데 드디어 V10의 속원을 풀게 돼 기쁘다. 아울러 선수·감독·구단에 축하의 뜻을 전하고 싶다. 올시즌 KIA가 눈에 띄게 달라진게 있다면 선수들간에 ‘한번 해보자’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느때와 달리 강해 보였다. 특히 이종범 선수는 팀의 만형으로서 옛 타이거즈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돋보였고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선수들 자신감 증만 V11, V12 계속될 것

이순철(MBC ESPN해설위원)



너무 오랜만에 받은 가장 기쁜 소식이다. 누구보다도 구단 직원들이 그간 겪어온 마음 고생을 털어버릴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다. 물론 감독·코치·선수들의 투혼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 앞으로 우승의 여세를 몰아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란다. 이 순간 기억에 남는 한국시리즈가 있다. 지난 1996년으로, 선동열·김성현의 투타 핵이 빠진 상태에서 후배들이 다독거리며 정상을 밟았던 순간이 새롭게 생각난다.

호남팬들의 뜨거운 성원 잊지 말아야

백기성(옛 타이거즈 코치)



선수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돋보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승의 추억을 다시 꺼내들게 돼 기쁘다. 페넨트레이스 우승때 조 감독에게 축하 문자메시지를 넣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더 축하를 해주고 싶다. 선수들 못지않게 호남인들의 뜨거운 열기도 우승의 한몫을 했다. 팬들이 없는 프로경기는 생존할 수 없듯이 구단·선수들도 매경기 성원해준 타이거즈 팬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KIA 초대 인스트럭터 김응식 조선대 교수 기고

1982년 프로야구가 시작되리라 광주 김응식·김성현의 전성기를 한 발짝 더

트실했게 이어갔고 윤석민·양현종·유동훈·로페즈·구본슨 등은 무등산 쪽계기 산봉우리를 뚫어놓은 완벽투를 구사하였으며 오랜 투병과 재활로 몸이 완벽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대진은 어려운 길목마다 사력을 다하여 우리를 감동시켰다. 이대진의 모든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못다할 만큼 그들은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모든 팀을 압도하였고 명문구단 타이거즈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전국 방방곡곡 그들의 팬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그들은 지금 겨우내 길러놓은 체력도, 낫을 가리지 않고 다들 기술도 모두다 소진하고 있다. 남아있다면 혹독한



너무도 행복한 가을잔치

풀이켜 보면 잠깐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 했던 쓸쓸한 가을은 강산이 변할만큼 긴 시간으로 이어졌고 타이거즈는 무척하게 웅크리고만 있었다. 타이거즈 팬들이 있는 광주는 물론 문화, 잠실구장까지 변함없는 애정은 계속됐지만 그들은 실망만을 안겨주었고 여기저기서 서운함이 묻어 있는 투정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겨울훈련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이어만 리 타구에서 새벽부터 밤 늦도록 훈련으로 날을 새면서 일년의 대부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냈던 진저리 치지는 외로움이 문득문득 스쳐지날 것이다. 타이거즈는 28년의 한국프로야구사에 열 번 챔피언을 차지한 명문구단으로 다시 한번 우뚝섰다. 이제 12년의 아픈 세월은 잊어라한다. 그리고 마음껏 즐기며 목청껏 소리 높여 즐거움을 노래하라.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그동안 여러분을 응원한 팬들에게 감사하고 어떤 것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가족에게 즐거운 시간을 준비하라.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2010년을 가슴에 담아라. 우리 모두는 2010년 타이거즈 깃발 아래 메달된 챔피언 깃발을 자랑스럽게 바라 볼 것이다.

구단의 모그름이 바뀌고 절치부심 명성을 되찾으려 무던히 애쓰 타이거즈는 드디어 올해 원기를 회복하고 다른팀들이 체력이 저하된 여름을 놓치지 않았으며 상대팀들이 반격 할 수 있는 작은 틈새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일궈냈다.

청출어람. 이종범, 최희섭, 김성현은 전설적인 '해타선 4 K' 김봉연·김준환·

최경주·신지애 나란히 우승

각각 말레이시아·日서 승전보

전남 출신 '오누이 골퍼' 최경주(39·나이키골프)와 신지애(21·미레에셋)가 나란히 승전보를 올렸다.

최'지훈' 신지애는 25일 일본 효고현 마스터스골프장(파72·6천510야드)에서 열린 마스터스GC레이디스 마지막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미즈카 유코, 후쿠시마 아키코(이상 일본)와 3라운드 합계 8언더파 208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탱크' 최경주는 아시아투어 이스칸다르 조호르로프 골퍼대회(총상금 100만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최경주는 25일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의 조호르 바루 로열 조호르골프장(파72·6천98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만 8개를 잡아내며 8언더파 64타를 뽐내며 최종합계 20언더파 196타로 정상을 올렸다. 우승 상금은 15만8천500달러다.

올 시즌 일본대회에 네차례 출전, 후지산 케이 클래식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다던 신지애는 다섯번째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상금 2천214만엔을 받았다. 일본투어 통산 3승과 함께 시즌 상금 3천341만9천엔을 쌓은 신지애는 상금 랭킹도 19위로 뛰어 상위 50위까지 주는 내년 JLPGA투어 폴시드권도 사실상 확보했다. /연합뉴스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김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 지역 | 소재지 | 면적(㎡) | 관망가 | 최저가 |
|----|-----|----------|-------|---------|
| 전남 | 목포시 | 105/22 | 8년 | 11억5천5백 |
| | 대우 | 158/48 | 1998년 | 3억5천5백 |
| | 건원 | 118/36 | 1년 | 7천1백 |
| | 관동 | 109/33 | 8년 | 5천5백 |
| 대구 | 관동 | 112/34 | 1년 | 8천4백 |
| | 관동 | 112/34 | 1년 | 8천 |
| | 관동 | 165/50 | 3년 | 2억5천7백 |
| | 관동 | 112/34 | 1년 | 2천5백 |
| 부산 | 관동 | 105/32 | 9년 | 6천2백 |
| | 관동 | 148/45 | 19년 | 1억1천2백 |
| | 관동 | 218/68 | 4년 | 2억3천8백 |
| | 관동 | 105/32 | 9년 | 6천2백 |
| 전남 | 관동 | 165/50 | 2년 | 1억1천 |
| | 관동 | 105/32 | 1년 | 7천 |
| | 관동 | 155/47 | 19년 | 1억1천9백 |
| | 관동 | 105/32 | 7년 | 5천1백 |
| 부산 | 관동 | 202/61 | 19년 | 9천8백 |
| | 관동 | 188/57 | 3년 | 2억3천8백 |
| | 관동 | 161/49 | 2년 | 2억3천 |
| | 관동 | 135/41 | 19년 | 1억2천9백 |
| 사주 | 관동 | 109/33 | 19년 | 1억1천 |
| | 관동 | 128/59 | 19년 | 1억3천9백 |
| | 관동 | 158/48 | 2년 | 1억4천5백 |
| | 관동 | 208/63 | 2년 | 1억5천4백 |
| 전남 | 관동 | 181/55 | 4년 | 2억2천 |
| | 관동 | 190/239 | 2년 | 2억2천 |
| | 관동 | 109/33 | 19년 | 2억2천 |
| | 관동 | 2880/298 | 19년 | 2억2천 |

태양광발전소 및 사업인수

대상: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발전소 -사용승인 후 현재 가동 중인 건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선정 사업부지

-2010년, 2011년 선정 건

지역: 전국

규모: 200KW이상

기한: 2009. 10. 20

자금집행: 서류 완비 후 1개월 이내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해와 땅**

상담문의 **010-7219-7123**

금산공인중개사 T.681-5886 H.011-801-5354

(금호동 새마을역 건너, 2호선로터번)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학림동 옆(4면 광로변)

대지 약 2850㎡, 가격 협의결정

•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만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청 접근성과 5.18 광로변)

• 광주 최고의 상권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 현지 10층 신축건물 앞

한길부동산중개 풍서 4층동 1301호(부동산) 011-647-4114

주유소 매매

북구 중흥동 1.250㎡

매매가 12억(약대)

대로변, 위치좋은, 공사지기이하

현 임대 수입: 보증금 21,000만, 월 800만

- 전원주택 매매 -

회성군 춘향면 동두리 69번지

대지 1,270㎡ 매매가 4,500만

☎ 011-647-4114